

고난을 응답의 현장으로 만든 욥

- 복음으로 여는 욥기 -

욥기1:8-12, 야고보서5:11

정윤돈 목사님

“우주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어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 끝까지 증인 될 수 있는 축복과 천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먼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제 1, 2, 3, 4, 5 RUTC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욥은 죄없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인간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엄청난 숨은 죄가 있다.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 인간들은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 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 더 성숙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목표를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후대까지 영육 간에 축복을 얻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램네티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237 치유서밋의 응답이다. 또한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르며 살아왔다. 이 세상에서 시험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별히 믿음의 시험은 꼭 합격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겪었던 욥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먼저 첫 번째로, 욥기의 개론과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다.

(1) 개론이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대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70 인역에 보면 욥은 240 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욥이 고난을 당한 기간을 약 30 년으로 보고 있다. 70 세에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기간 30 년이었으며 이후 140 년을 더 살았다. 욥기는 욥 한 사람의 고난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이지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다. 욥기는 42 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성경 중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가장 긴 내용이다. 이것은 인간과 고난의 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고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닥친 이해되지 못할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욥기는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사실적인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욥은 이 사실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욥기 23 장 10 절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2) 다음으로는 욥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욥기는 42 장으로 비교적 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고 읽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욥기의 많은 부분이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논쟁(변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욥기의 전체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장에서 3 장까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인해 두 번의 고난을 당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①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은 모든 재산과 자녀와 종을 잃어버리지만 원망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겠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토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을 당하는 초기에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욥의 많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대한 말씀들을 보겠다. 욥기 3장 26절이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6장 25절이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욥기 10장 1절이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기 11장 2절이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② 2장 7절에서 10절에는 온몸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심한 악창이 났지만 이때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인을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③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 엘리후가 변론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변론의 순서는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바스가 변론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빌닷이 변론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변론한다. 두 번째 변론의 순서는 욥-엘리바스, 욥-빌닷, 욥-소발이고, 세 번째 변론의 순서는 욥-엘리바스, 욥-빌닷, 마지막으로 욥이 이야기하자 변론하지 않는다. 네 번째 변론은 32장부터 37장까지로 이 부분은 젊은 엘리후의 말로만 되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고난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정의한 인물이 젊은 램네티 엘리후였다. 우리 후대는 엘리후와 같은 복음과 말씀중심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욥기 3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④ 38장부터 41장에서는 하나님의 70가지 질문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연 만물의 원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아느냐’고 질문을 하신다.

⑤ 42장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다. 욥은 42장 3절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42장 6절에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42장 5절을 보겠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즉,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바란다.

⑥ 그리고 4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욥과 변론한 세 친구에 대해 꾸지람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세 친구의 주장은 ‘네가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단순한 논리였던 것이다. 그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⑦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축복이 두 배로 회복되는 장면으로 욥기는 끝나고 있다. 성경에서 두 배의 축복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갑절의 축복을 의미한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금같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2. 두 번째로 욥이 겪은 고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욥기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가축들을 모두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2) 욥기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3) 욥기 1장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4) 욥기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큰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

(5) 욥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으로 긁을 정도였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6)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말하였다.

(7) 친구들도 욥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꾸지람하고 정죄하였다. 고난을 겪을 때 욥의 고백을 보면 사실 그다지 믿음이 훌륭한 고백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욥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따지고 싶었던 것이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부분의 대화를 보면 친구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랑하고, 말이 많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욥을 더 귀하게 인정해 주셨던 것이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언약을 잡고, 절대적인 복음의 여정을 걸었던 욥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완전복음의 모델이 되고 있다.

3. 세 번째로, 욥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욥은 진정으로 아무 죄도 없이 정

죄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이다. 율법주의에 빠져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은 욥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2) 욥기는 오직 믿음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3) 세상적으로 뛰어난 철학적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욥기는 고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② 꼭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은혜요 축복이다.

③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정리되었다.

④ 욥이 당한 고난은 죄 없이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⑤ 욥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우주와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고 10 종류의 짐승과 동식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유 있는 절대순종과 절대복종을 해야겠다.

욥기를 통해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말고 욥과 같이 승리하는 절대언약과 절대복음을 붙잡아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가서 그들을 욥과 같은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의 꿈은 참사랑 RUTC를 세워서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4시 집중기도하기를 바란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일평생 모든 문제를 응답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해주셔서 이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하루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